

조국 회고록 '조국의 시간'...민주 대선주자들 "답답한 시간"

친문인사들 "검찰 수사 공정했다...당 관여할 바 아니다" 옹호 "또 윤석열 등장 정권 재창출 악영향"...송영길 대표 입장 표명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1일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친문 인사들은 "당이 관여할 바 아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비주류와 일부 대선주자 사이에서는 '조국 사태' 재소환이 대선가도 여론에 미칠 악영향 우려와 함께 비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MBC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평가를 한 번쯤 다시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 사과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민주당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이 직접 책임있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이 TBS 라디오에서 "한 사람과 가족을 70~80점 압수 수색을 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이었나. 95%의 언론이 공격한 사모펀드

부분은 거의 무혐의·불기소 처분됐다"며 "조 장관이 본인 할 얘기를 책으로 쓴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답답하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친 부분이 있었고, 그 억울함도 이해한다"면서도 "출간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생각 못 했을까. 정권 재창출을 못 하면 다 죽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 대표 측의 신경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되면 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전면에서 등장하고 조국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간다"며 "당내 우리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조국의 시간"은 조국

의 권리이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당의 의무다. 4·7 재보선 민심은 민주당이 변화하라는 뜻이었다"며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 달라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메시지 혼선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은 존중하면서도 공정성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은 별도로 취해지는 지적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회고록 출간은 개인 자유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다.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 과제들이 근본적 해법을 찾길 바란다"면서도 "당이 교육 불평등을 기득권적 태도로 바라본 것을 통렬하게 반성·성찰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일주일 '민심 경청 주간'을 통해 당 바깥의 쓴소리를 들어온 송영길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소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고록 출간 자체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입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2일 송 대표의 기자회견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핵심 관계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크지만, 신중론도 만만찮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최고위 지도부 의견을 최종 수렴, 2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민주평화광장 출범 광주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이 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중앙공동대표와 이형석,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재명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1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 공식 출범했다. '광주민주평화광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에는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비롯

해 김영진·김윤덕·문정복·민형배·이동주·이혜사·이형석·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광주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는 광주가 지역구인 이형석(북구을)·민형배(광산구을) 의원이 맡았다. 이 지사는 영상 축사에서 "광주는 우리 역사의 변곡점마다 국가 공동체가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

도록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출범식이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민주·평화·공정의 가치가 널리 퍼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민주평화광장'도 이날 오후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은 지난날 20일, 민주평화광장은 지난날 12일 발족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석열, 국민의힘으로 '직진 신호등'...정치적 결단 임박한 듯

권성동·정진석·윤희숙과 접촉 입당 열어두고 검토하는 듯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세 접촉하며 정치적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으면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과 맞물려 윤 전 총장이 정치적 결단을 할 시기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날 29일 의사가 있는 강릉에 내려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회동했다. 윤 전 총장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정치적

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윤 전 총장은 특히 권 의원과의 만찬에 참석한 지인들이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 '당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지난 26일에는 정진석 의원과 4시간 가까이 단 둘이 술잔을 기울였다. 윤 전 총장과 정 의원은 충청 연고를 고리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한편, 내년 대선에서 기밀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명제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1일 통화에서 "정치 참여 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며 "윤 전 총장이 확답하지 않았지만 경청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에는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비판적 소리를 내온 만큼 현 정부의 경제 기조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각계 전문가를 만나 '대권 공부'를 하는 것 외에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과 접점을 넓히면서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이 입당을 결심한다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안으로 결단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연합뉴스

북 대화 테이블 끌어내기 주력...대북접촉 없어

박지원 국정원장 방미 귀국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6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다. 지난날 26일 출국했던 박 원장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비롯해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방미는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두 정상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준중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만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 논의와 대북 동향·정세 판단 공유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

다. 일각에서는 박 원장이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접촉할 것이라 관측도 나왔으나 대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박 원장의 동선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뉴욕과 워싱턴D.C.를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 원장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댓글 형식으로 '어제 DC도 오늘 NY도 비가 5(오)도다'라고 남기기도 했다. 'DC'는 워싱턴, 'NY'는 뉴욕을 의미한다. 한미일 정보당국은 최근 한 달 새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박 원장은 지난날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했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곧바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 및 박 원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의원 광주형 일자리 법안 발의

경형차 취득세 혜택 법안

광주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비례·사진) 국회의원이 광주의 현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국회의원 제2지역구를 배정하고, 5·18묘역에서 무릎사과를 하는 등 적극적인 '서진정책'을 펼치면서 적극적인 '호남 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전주혜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법안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게 될 경형차에 대한 취득세 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은 5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이 같은 취득세 감면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게 될 차량이 자칫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광주시 등이 정치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전 의원은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신차 판매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전 의원이 이를 앞장 서 법안에 담고 있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주혜 의원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호남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면서 "광주를 찾았을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하는 많은 분이 많았고, 광주형일자리 관련 현안 건의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광주지법·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p>010-6670-9800</p>	<h3>신축원룸(매매)</h3> <p>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p> <p>★4개동(월수익 3천)년 4억 / 매가 52 (용 25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p>010-4667-9820</p>	<h2>꼭! 받아야 할 돈 회수</h2> <p>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p> <h3>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h3> <p>(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p>전문추심인 직접관리</p> <p>24시간 상담가능</p> <p>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p>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p>
--	--	--